

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

글 이두현(고양시 덕양구)

우리 집 주방에 있는 창문은 옆집 할머니네 창문과 마주하고 있다. 이 집에 이사 오기 전 공사할 때가 생각난다. 새로 짓지는 않았지만, 40년이 넘은 구옥이라 대수선을 하고 들어왔다. 그때 옆집 할머니께서 창문의 위치가 불편하니 바꿔 달라고 하셨었다. 마주하고 있어 불편하니 각도를 좀 틀어달라는 말 씀이셨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서 바꿀 수 없었다. 그래서 이사 온 뒤 할머니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 쓰며 지냈다.

드르륵~ 훅!

“유찬아~ 머루포도 먹어라”

“아기 엄마~ 수제비 한 그릇 먹어봐”

“오이가 벌써 열렸네~ 처음 열린 거라 싱싱해”

삶은 감자, 비빔국수, 수제비, 오미자청, 오이, 포도, 복분자청, 상추 등 창문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훅! 들어온다.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내가 불편하게 생겼다. 참 재미있다. 창문이 불편하시다면 할머니는 그 창문의 주인이 되셨다. 창문으로 안부를 물으시고 창문으로 마음을 나눠주신다.

아파트에 살 때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이웃과의 짧은 적막이 불편하고, 현관문이 광 하고 닫혔을 때 편안했던 내가 이제는 수시로 열리는 창문을 통해 ‘불편함이 진짜 관계이고, 진짜 삶’이라는 걸 배운다. 수제비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보며

돈으로 포장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는다. 형식적인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아도 오이 두 개와 함께 건네는 눈인사가 진짜 인사라는 것을.

도시의 삶과 시골의 삶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, 나는 사랑의 전원마을에서 도시와 시골의 그 중간쯤에 사는 것 같다. 도시의 삶이 안전이나 편리함을 이유로 그 경계를 더 확실히 한다면, 시골의 삶은 그 편리함을 포기하며 경계를 허물지만, 다른 차원의 편안함이 생기는 것 같다.

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.

수제비 한 그릇이 또 훅! 들어왔다. 신량이 없는 주말 점심에 아이들과 뭘 먹어야 할까 고민하던 순간이라 더없이 반가웠다. 이제 내가 창문만 바라보고 있을까 봐 겁이 난다.

